

국제복음개혁신학대학 이사회 이사,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그동안도 우리 신학대학(원)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신학대학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 싶이 한국기독교는 서구의 다른 나라의 기독교에 비해 한국의 오래된 유교 및 불교의 전통과 문화속에서 독특한 형태의 기독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양문화권 속에서 한국기독교는 비록 약 15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2015년 기준으로 한국종교인의 25%에 해당되는 약 천이백만의 신자를 가진 종교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해외 한인교회도 약 5000개가 넘을 정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기독교(개신교)는 2017년 당시 등록교인수기 10만을 넘는 교회가 8개가 있었으며 1만명이 넘는 교회도 약 20개가 넘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 들어 오면서 성장기를 넘어 성숙기에 들어서야 할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1200만의 성도가 현재는 8배만이 겨우 넘는 쇠퇴기에 접어든 한국교회 실정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구의 자본주의 소산으로 생겨났다고 할수 있는 서구기독교가 Post-modern(후기 현대)시대에 들어오면서 종교의 차별을 배제하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중세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정부가 종교의 다문화 현상속에서 동성애와 낙태문제, 성소수문제등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게 되면서 이에 동조하는 자유주의 교단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또 한편 이를 반대하는 보수주의 교단과 마찰을 빚어오면서 드디어 각 교단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갈라설수 밖에 없는 현상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장로교를 위시해서 감리교 심지어는 침례교에도 이 문제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장로교는 1983년을 기준으로 약 430만의 성도가 120만으로 줄어들게 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post-modern 현상이 한국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기독교도 Corona 문제로 성도들이 교회출석 기피 현상이 뚜렷하여 3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정상으로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한국교회지도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에는 사망율이 출생율 보다 앞서는 나라로 한 가족당 출생율이 1명도 못되는 0.78명으로 이제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여러교회가 합쳐서 공동주일학교를 운영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번 Corona 때문에 한국기독교는 2000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대형교회를 건축하던 교회들이 파산신고를 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신학교들은 신입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경우도 많으며 신학생 모집을 위해서 자격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받아드리게 되어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성경말씀을 바탕으로한 복음주의와 종교개혁시대의 개혁정신을 본받아 성장해온 국제복음개혁신학대학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현재 40명이상이 등록을 마쳤는데 개교이래로 가장 많은 학생이 등록하여 CCC의 McVety 총장님도 기뻐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국제복음개혁신학대학(원)은 신학대학원, 상담대학원 그리고 2월에 개설될 기독교음악대학원등 삼위일체의 신학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지난 9월에 한국의 Kings College Global과 MOU(자매결연)를 맺어 우리 신학대학의 가족이 되었고 Kings College Global은 현재 이스라엘 그리고 파키스탄등을 포함한 세계 10개국에 지교를 설립하여 강의가 나가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내의 Chape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C 총장님과 제가 내년에 Kings College Global을 방문하여 집회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뿐 아니라 금년 12월 중순에 과테말라에 우리 신학대학 식구들이 가서 목회세미나를 주관할 뿐 아니라 과테말라 신학대학 분교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은 이렇게 발전하여 머지 않아 학생수가 100명이 넘는 세계적인 신학대학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것은 우리신학대학의 발전을 뒷바침 해주기 위해서 Joshua Park 이사장님과 이사 14분들이 열심이 헌신한 결과 학교가 새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봄의 성공적인 장학기금모금 음악회를 비롯해서 새로히 단장된 Website, 신학대학 교기, logo, logo 뺏지등을 제작했고 앞으로 Fund Raising을 통해 많은 교수들을 영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신학대학 교기는 한국의 Kings College Global 총장 박흥수 목사님께서서 기증한 것입니다.

또 이사회에서는 우리 신학대학의 공식명칭인 International Evangelical Reformed Seminary 이름으로 그리고 비영리기관으로 다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10월 15일에 창설될 교단도 IRS에 등록중에 있습니다.

새교단 창립 이전에 먼저 서구 및 미국의 교회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지하듯이 미국교단은 현재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 보수층은 약 80%가 그리고

자유주의 교단의 교역자들은 약 45% 정도가 성경을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있다고 하며 더 나아가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수 있으므로 타교단과 대화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용서의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단마다 오랫동안 목사 와 장로와 그리고 평신도간에 교권문제로 인해 교단이 갈라지는 현상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교단의 경우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는 목사나 장로만이 총대가 되어서 회의에 참석할 뿐 평신도는 교단에 가입해서 일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것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미국교회를 빌려서 셋방사리를 하면서 또는 미국교단에서 용자를 얻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교단의 정책에 할 수없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기독교 특히 이민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있는 미국교단의 체제속에서 우리 이민교회도 생존해야 할것인가 아니면 우리 이민교회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선택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제복음개혁신학대학은 복음주의와 종교개혁시대의 개혁정신을 본받아 생명력이 있는 Missional Church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여 새 교단을 창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Mission 즉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웃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완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새교단의 특징은 다른 교단과 달리 한 개교회가 기본이 되어서 노회나 대회 및 총회를 구성하는 조직적인 체제가 아니라 더욱 나아가서 장로와 목사들이 총대가 되어서 회의에 참석하는 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평신도 중심의 교단을 창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적인 교단체제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회중교회 방식입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 및 평신도들이 다같이 동등하게 회원이 되어서 여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사역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교단의 설립목적을 세웠으므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복음개혁총회(International Evangelical Reformed Assembly (IERS)의 설립목적

국제복음개혁총회는 성경말씀에 기초를 둔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원칙적 신앙고백서로 받아드리는 Reformed /Presbyterian 신학에 근거한 교단이다.

이 교단은 교단내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들의 권익을 존중한다.

이교단이 일반 다른 Reformed/Presbyterian 교단과 다른것은 소수민족 및 다민족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단이다.

이 교단은 성별과 인종의 차별없이 평등주의 입각해서 사역을 펼쳐 나아간다..

이 교단은 다른 Reformed/Presbyterian 교단들은 물론 우리 교단과 공동목표를 가진
타교단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조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교단은 Reformed/Presbyterian 교단들이 흔히 중요시하는 가시적인 조직체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보다 조직을 초월하여 전세계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사역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교단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교단이 될것이다.

이 교단은 특별히 발전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인 Latin America 와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여러나라를 대상으로 세계선교를 펼치는 교단이다.

우리신학대학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것입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득해 목사

국제복음개혁신학대학 총장